박종희(전 울산 사회선교실천협의회 사무국장[1]) 1차 구술

1. **구술자**: 박종희
2. **면담자**: 박보영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2년 2월 17일
5. **구술장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 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카페
6. **구술분량**: 05분 21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1990년 현대중공업 골리앗농성 당시 현장 방문

구술자 : 저는 그때 당시에 개인적으로는 내부, 인제 전국 공개수배는 아니지만 지역권 안에서 내부 수배상태에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골리앗 싸움[2]을 지원하는 외곽활동을 하던 차였었죠. 그래서 인제 국회 진상조사단[3]이 온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고 몇몇 사람들이 협의를 하고 그리고 저도 하여튼 직접적으로 내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대통령님한테 제가 직접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차를 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노 전 대통령님 차를 타고, 뒷좌석에 타고서 그러고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인제 보좌진으로 가장을 해서 골리앗 크레인까지 같이 올라갔던 거죠.

거기에서 진상조사단과 그리고 그 골리앗 투쟁, 현장투쟁 지도부들간의 간담회와 질의응답 그리고 조사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동행했던 기자

---

1) 1986년~1990년 재직

2) 1990년 4월~5월에 발생한 현대중공업 노조의 골리앗 크레인 점거 파업농성. 현대그룹과 공권력이 1990년 임금투쟁을 앞두고 현대중공업 노조 지도부를 구속하자 이를 노동자 탄압으로 규정, 4월 21일 조선사업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파업에 돌입하고, 4월 25일 전면 총파업과 동시에 이갑용 사무국장을 총책임자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사측의 요청으로 공권력 투입이 결정되고 1990년 4월 28일 새벽 3시 45분 이른바 '미포만 작전'을 시작으로 73개 중대 10,000여 명의 경찰병력이 블도저를 앞세워 파업 진압이 시작되었다. 하늘에서는 헬기가 선무방송을 하고 바다에서는 군함을 통해 미포만으로 진입해 들어왔다. 이에 저항하던 골리앗 결사대 78명은 골리앗을 점거한 채 투쟁을 이끌어가기 시작했고 농성 강경진압은 울산지역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연일 대규모 가두시위로 이어져 5월 3일까지 가두시위 관련 연행자가 730명을 넘어섰으며 전노협 총파업으로 이어졌다. 5월 3일 골리앗에서는 사측의 단전단수로 물이 바닥나고 생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국회 노동위 소속 노무현 의원을 비롯한 국회진상조사단은 5월 3일 골리앗 크레인에 올라가 파업지도부를 만났다. 그 후 외부로부터 고립된 상황에서 버티던 농성대오는 농성 13일만인 5월 10일 오후 2시 30분 '현중노조가'를 부르며 골리앗에서 내려와 전원 연행됨으로써 투쟁은 마무리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민주화운동사료전거데이터 209~211쪽 참고

3) 민주당의 현대중공업 진상조사단은 박찬종, 김광일, 김정길, 노무현 의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1990년 5월 3일 민주당 현중진상조사단과 이갑용 비대위원장의 만남에서 공권력 철수 조건으로 고공농성 해제 등 협의가 진행되었다. 경향신문, 1990.5.4 참고

들의 어떤 취재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비공식적인, 골리앗 투쟁의 실질적인 어떤 실무를 담당했던 몇 사람과 인제 만나서 내부의 골리앗 투쟁의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파악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골리앗 투쟁에 어떤 일정계획이라든가 진행계획, 전망 이런 데에 관해서 그리고 또 바깥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데 관해서 협의를 하고 그때 당시에 골리앗 투쟁기록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었던 사진 필름이라든가 녹음테이프 이런 것들을 상당한 분량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테이프하고 사진 필름까지면은 수십 개가 될 텐데 그거를 제가 가지고 나왔죠.

그 상황자체가 워낙 절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정상적인 판단과 이런 어떤, 그리고 또 회사 측의 어떤 대응도 역시 굉장히 그 단전단수가 다 이루어지고 워낙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우려도 한편으로는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김진숙 지도위원이 고공투쟁[4]을 했던 크레인하고 그때 당시 현대중공업 골리앗 크레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여기는 대형크레인입니다.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옥상에서, 크레인 위에서 족구를 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크레인이죠. 그리고 크레인 내부에 규모도 뭐 굉장히 뻥 뚫려있는 엄청난 공간이 이루어져있고 그래서. 그리고 크레인을 올라가는 것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다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외부로, 그 크레인 다리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철계단을 통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바람 때문에 몸이 휘청휘청 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거기 크레인을 올라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런 아찔한, 국정 진상조사단에서 어쩌면은 국회의원 신분의 사람들이 그 철사다리를 타고서 거기에 올라갔다는 것이 지금도 하여튼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기억이 되고. 아마 그때 당시에 노 전 대통령께서 느꼈던 감정을 상상을 해본다면은 이거는 정말 중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절박함,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이런 심정도 작동했을 수도 있다. 이런 데에 관해서 공감이 됩니다.

---

4) 구술 당시 현직은 민주노총 지도위원.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크레인 위에서 2011년 1월부터 309일간 고공농성을 벌였음.

■ **구술자 주요이력**

1956. 청주 출생

1985. 충북민주화운동협의회 창립
1986. 울산사회선교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987. 울산노동문제상담소 설립 및 운영위원
1990. 울산민주시민회 사무국장
2008. - (사)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부이사장(2012년 현재)
2009. - (사)나눔누리 운영이사(2012년 현재)

1980년대 중반 울산 노동운동의 지원 역할을 했던 울산사회선교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교류했다. 울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청강연, 1987년 울산노동문제상담소 설립 등의 활동이 매개가 됐다. 당시 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로서 특히 노동자, 노동운동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였다.